

노인 안전대책 본격 가동

남원시, 폭염 대비 독거노인 대상 생활관리사 방문 건강상태 확인

남원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6월초부터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폭염대책을 마련하고 9월까지 독거노인 보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폭염 시 안전확인이 상시 필요한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활용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1회 이상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노인돌봄기본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3개 읍·면·동에 50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1인당 약 30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폭염 기간에는 휴일도 없이 매일 독거노인 간의 안전확인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마을별 폭염대비 행동요령과 무더위

쉼터 이용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에게 폭염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과 폭염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폭염발령 시 발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의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로 지정하여 이통장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갖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남원시는 △노인일자리 노노케어 서비스로 취약노인 305명에게 주 3회 안부확인 및 말벗 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거동불편 어르신 265명에 신변활동 등 지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으로 독거노인 148가구, 중증장애노인 52가구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한 응급상황 시 신속한 119 신고 등으로 폭염기간 어르신 안전확인을 실시한다.

또 경로당 489개소에 냉난방비가 연 10여억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폭염경보 발령 시는 재난문자시스템(CBS)에 등록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게 재난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어 활동을 지원하며,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돌발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신속히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원시는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지속 상승하며, 폭염일수가 10.5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등은 한낮에 외출을 삼가해 주시길 바란다."며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무더위 쉼터를 적절히 이용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 토굴 가상현실 우주여행 '성공예감'

하루 300여명 체험... 발효소스토굴 대표관광지 변신

순창 발효소스토굴 VR(가상현실)체험관이 지난 1일 문을 연 가운데 체험객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발효소스토굴의 관광지 변신에 큰 몫을 하고 있다. 특히 휴일인 10일에는 가족 단위 체험객을 중심으로 하루 300여 명이 다녀 가면서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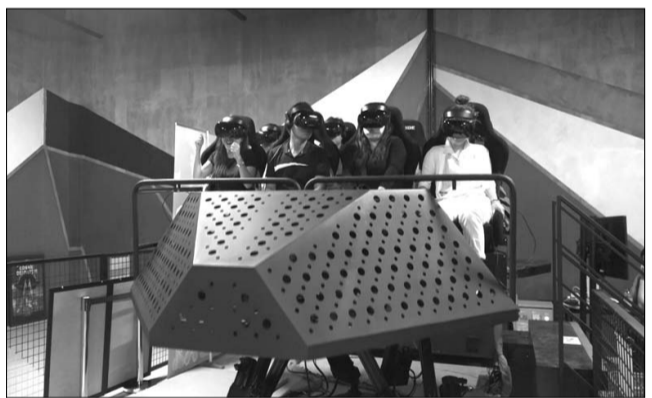
11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이 이번에 발효소스토굴내에 설치한 VR(가상현실)체험관은 전통장류의 중요성을

재미있는 우주여행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순창만의 특화된 가상현실 공간으로 지난해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완료했다.

체험객들은 먼 미래에 제2의 지구를 찾아 떠난 선발대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구조를 요청하고 이를 구하기 위해 순창고추장에서 추출된 백신을 전달하는 과정을 가상현실공간에서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주속 가상현실 세계에는 순창의 대표관광지인 강천산의 현수교, 구장군폭포, 병풍폭포 뿐만 아니라 추령장승, 순화리 느티나무, 체계산 화산용바위 등 순창의 대표볼거리가 숨어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도 관광객들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토굴 VR체험관은 기존 미디어아트 열 공간에 4D 어트랙션 시뮬레이터 등을 구축하여 가족단위 관광객 8인이 한 번에 체험 가능한 규모로 토굴 관광객이 중장년층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로 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콘텐츠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발효소스토굴은 국내 최대 규모로 연평균 15~18도를 유지하며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세계의 다양한 소스들이 전시된 전시 기획관부터, 트릭아트, 장류 저장공간 등 다양한 소스 뿐만 아니라 교육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재미와 교육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장명균 군수관한 대행은 "발효소스토굴 VR 체험관이 개관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벌써부터 사람이 몰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발효소스토굴을 순창의 특색 있는 관광지이자 교육형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발효소스토굴 VR 체험관이 체험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재일교포 전북도민회 정효부(77) 순창회장 일행은 순창군을 방문해 5천여 만원과 부인 김덕자씨(75)가 써낸 한국요리 책 30권을 기증했다.

재일 전북도민회 정효부 순창회장 5천여 만원·한국요리 책 기증

'대를 잇는 순창사랑 실천'

재일 전북도민회 정효부 순창회장의 대를 잇는 순창사랑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일 재일교포 전북도민회 정효부(77) 순창회장 일행은 순창군을 방문해 장명균 군수 권한대행을 만나 순창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써달라며 5천여 만원과 부인 김덕자씨(75)가 써낸 한국요리 책 30권을 기증했다.

정효부 회장이 이 같은 순창사랑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정효부 회장의 부친인故장근재씨는 순창 유등 출신으로 일본에서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과거에 순창을 외곽 2km에 걸쳐 심어진 뽕나무 등을 기증한 바 있다.

그런 아버지의 고향 사랑을 대를

이어 실천하고 있다. 정효부 회장은 일본 동경에서 태어나 1944년 동경 공습이 심해지자 순창에 피난하여 6세 때까지 순창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정 회장은 "내가 죽어도 자녀들이 순창을 사랑하고 대를 이어 고향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함께 방문했다."며, 방문 목적을 말했다.

정효부 회장은 지난 2008년에는 회원들과 함께 순창을 방문해 순창공설운동장 왕벚나무 100주(시각 3천 300만원)를 기증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순창유치원내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순창을 위한 공헌활동을 진행해 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오수휴게소 홍보탑 피자체험

임실군이 임실N치즈 브랜드 홍보를 위해 피자체험 등 프로모션 행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오수휴게소(남원방향) 임실N치즈 홍보탑에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피자체험을 상시 운영한다.

임실N치즈를 이용한 피자만들기 등 체험행사와 치즈와 유제품에 대한 관측 홍보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고속도로 이용객에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임실N치즈의 우수성을 맞보고 체험한 관광객들이 고속도로 이용 시 오수휴게소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임실군은 지난해 대한민국 유망축재에 선정된 임실N치즈 축제를 올해도 해마다 같은 날짜인 10월6일부터 10월9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마을과 치즈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 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날제 문화관광치즈교장은 "치즈는 이제 기초식품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국민식품으로 널리 소비되고 있다"며 "한국치즈의 원조인 임실N치즈가 치즈시장을 주도하고, 다양한 즐길거리와 함께 국민적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남원시 희망복지지원단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역복지현장솔루션워크숍 공모에 연속 2년째 선정되어 오는 9월 민간협력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복지현장솔루션은 지역복지 이슈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교육운영에 필요한 예산, 강사섭외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19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지난해 따뜻한 '우리동네! 행복한 복지마을!'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복지현장솔루션 워크숍을 실시하여 민간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금년에는 민간협력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좋은 이웃찾아주기!'를 주제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사례공유, 주제발표 등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또한 오는 7월 4일 사회복지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함께하는 행복e을 중심의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봉황인재학당 기말시험 대비 주말반 운영

임실봉황인재학당이 1학기 기말시험 대비 주말반을 23일부터 운영한다.

민선6기 혁신적인 교육정책으로 꼽히는 임실봉황인재학당 학생들이 지난 5월 치러진 중학교 중간고사에서 전연 기말고사와 비교해 성적이 대폭 향상되면서 기말고사 주말반 운영에도 탄력이 불고 있다.

봉황인재학당은 특히 고입시험이 내신제로 전환하면서 중학교 내신관리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1학기 기말시험을 앞두고 23일부터 2주간 주말반을 운영, 다시 한 번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이번 내신대비 주말반은 국어, 영어, 수학 학습만으로 내신 성적을 향상시키기 어려워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된

다. 평일 외에도 학생들의 휴일 학습습관을 키워 면학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주말반은 재학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23일부터 2주 동안 토·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기존 국·영·수는 물론이고 과학, 역사를 포함한 1학기 기말시험 범위까지 이론 및 문제풀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임실봉황인재학당은 임실군을 선도할 미래인재교육의 산실로서 지난 1월 봉황로 301 번지 옛 기술센터 자리 5,934㎡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9개 강의실, 세미나실, 조리실 및 식당, 휴게실 등의 맞춤형 최신시설과 편의시설이 갖춰졌다. /임실=진종영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眞心
홍삼주